東亞日報

本紙六面

發行兼編輯人 宋鎭禹 / 印刷人 / 主幹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購讀料 一個月 壹圓 / 一部 五錢 / 廣告料 五號活字 一行 金壹圓

代表番號 光化門 一九〇〇

現代治者階級과 現實觀

一

人間社會는 언제던지 現實에 直面하게되는것으로 그社會的制約 自體도 現實에서 立脚하는것이오 이制約이 行使되는 範圍도 또한 現實을 떠나지못하는것이다 그럼으로 時代와 時代의 變轉로 말미암은 動搖는 免치못할것이나 當面한 그時代의 現實에 對하여서는 恰似히 鐵則과 가튼 必然性을 가지게되는것이며 一步를 進하야 一種의 普遍的 價値觀이 附與되는것이다 이리하야 個人과 個人사이의 現實은 彼此協調업는 良心으로써 此를 支配하게됨으로다 그것에 比하야 任意的 意義가 含有한것이며 個人과 國家사이의 現實은 公衆을 相對로 하는것인 關係上 法令으로써 此를 料理하는것임으로 服從치아니하면 안된다는 無限的 意義가 存在한것이다 前者共히 人間의 現實을 基礎로 삼는것이로되 前者는 個人과 個人을 云云하는것임으로 範圍도 狹小하고 價値判斷도 스스로 私的이거니와 後者에 이르러서는 公的한만큼 그 自體부터 이미 廣大한 意味가 잇는것이다

二

그럼으로 政治라하는것은 現實을 떠나지못하는것인 同時에 現實을 떠나야 判斷이잇는것이다 換言하면 現實을 料理하는데에 現實 그것만을 目標로삼지말고 現實을 미루어보아서 그現實이 誕生할 將來의 現實을 豫測하고 此에 作用한 準備的 料理法을 講究하여야한다는것이다 萬一 爲政者가 이點에 着目치못하고 다만 目下에 散在한 現實을 治理하기에만 汲汲한다하면 畢竟 模倣삼엇든 當時의 現實조차 엇지할수업는 窮境에 陷하는것임으로 그 社會를 滅亡으로 引導하는것이며 衰頹하고야마는것이나 이러한 爲政者는 現實의 中毒者인 同時에 現實로因한 自殺者로밧게 보이지안는것이다 이러한 者의 常套는 그 機가 到來치못하면 强壓, 威脅, 冷酷 等 手段으로써 人民을 對하는 것이매 臨時의 平靜 策로는 相當한 效果도 잇슬지 모르나 그 終局에 잇서서는 決코 美果를 엇지못하고 도리혀 制限의 反抗을 살뿐이다 東西古今의 史的 變遷은 이것을 充分히 證明하고 도남음이 잇스니 그 엇지 爲政者의 警戒할바 아니라

三

現代비록 文明의 現代라하며 文化의 現代라하야 謳歌하는 者이 잇슬지모르나 政治의 最高理想으로써 批判한다면 實로 暗澹한 現代 요 殘忍한 現代라할것이다 治者―被治者의 協調를 忖度치 아니하고 壓抑榨取를 能事로 알며 極度의 例로는 殺戮도 敢히 辭讓치 아니하니 이러고야 被治者인들 엇지 默過할수잇스랴 兩者의 反撥이 漸漸 심하가는 裡面에는 若干 「荒廢」, 「罪惡」이 날로 그 度를 거듭하여 갈뿐이다 이것은 所謂 現代의 治者階級이 現實에 對하야 너머 執着性을 가지고잇는때에서 出來함이니 그네들의 繁榮期도 極度에 達하엿다할것이다 이러한 時代에 處하여잇는 被治者階級들은 모름지이 明確한 信念과 根底잇는 希望을 가지고 沈着한 勇氣로써 나어가기를 要하는바이다 沈着한 勇氣는 途中에서 逢着하는 一切의 困難을 眼中에 두지안는것이니 將次만 主사람에게 信念과 希望의 確證을 주는 것이나 이곳 治者와 被治者의 注意를 促하는 바이다

九月十五日安慶서 國民黨善後會議

兩派合體와 黨問題討議를 武漢派와 馮氏提唱

南京政府贊意表示

十五日 馮玉祥氏는 十一日附南京에 向하야 武漢과의 合體及國民黨의 善後問題를 討議할 事를 提議하고 會議를 安慶에 開할事를 慫慂하엿다 南京政府各要人은 十二日附贊意를 表하는 電報를 發하엿더라(上海十五日發)

武漢政府는 完全히 共産黨과의 關係를 斷絶하고 九月十五日은 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 全體會議를 開할터임으로 南京政府는 速히 解散하야 該會議에 參加하고 雙方의 關係를 平和裡에 解決할 事를 各方面에 通電하엿더라(漢口十五日發)

馮氏를 總司令에

唐、李를 副司令에 推擧?

蔣介石氏의 下野에 依하야 革命軍은 北伐總司令에 馮玉祥氏를 推戴하고 副司令에 武漢派의 唐生智、南京派의 李宗仁氏를 擧할 模樣이더라(上海十五日發)

妥協派李宗仁

南京政府實權掌握

一時 緊張한 武漢南京兩派의 裏面運動에 效를 奏하야 南京派의 李宗仁氏는 有力諸將을 勸說하고 蔣氏를 下野케하엿슴으로 南京政府는 事實上 瓦壞되야 實權은 妥協派의 首領 李宗仁氏의 手에 歸하엿더라

軍事行動決定

唐氏가 南京派와 會見後

軍事委員會는 何應欽、胡宗鐸氏等으로 부터도 武漢政府에 武漢政府와 合體할 事를 電報하엿다고 傳한다 唐生智氏는 二十日 九江에 下하야 南京派의 代表와 會見하야 軍事行動을 決定한다더라(漢口十五日發)

蔣介石氏 日本에 亡命?

鄕里寧波를 退去?

中國側某處入電에 依하면 蔣介石氏는 十四日 鄕里寧波를 出發하야 何處런지 向하엿다고하며 又 佛國汽船標를 買하엿다고하나 日本에 亡命하라는것으로 解釋되더라

唐生智意嚮

第十五軍長 劉佐龍氏는 刑探殺害의 嫌疑로 逮捕되야 軍事委員會의 裁判에 附하기로 되엿는데 劉氏의 逮捕나 刑探殺害에 對하야 裡面에 잇서서 操縱한 者는 唐生智氏이다 此는 唐生智氏가 湖北系軍隊를 排斥하고 自己의 股肱의 湖南系로써 兩湖의 地盤을 鞏固히 하기 爲하야 서의 計劃으로 劉氏가 넘어간것이 다 此事件以來 湖北系軍隊의 恐慌 憤慨는 甚하야 果然 唐氏가 心中에 그린 그림대로 잘될지는 興味잇는 問題라더라(上海十五日發)

幹部大動搖

國民政府는 蔣介石氏의 下野와 同時에 李宗仁氏를 革命軍副司令에 任命하엿스나 胡漢民、蔡元培氏 等은 辭職하라고하야 廣東으로부터 李濟深氏와 上海에 來하기를 希望하고잇스며 又 上海市政府도 大動搖中에 在하더라(上海十五日電)

上海共産派 再次活躍開始

各國軍隊俄然緊張

蔣介石氏의 辭職은 革命軍에 一大鐵槌를 加하는 同時에 抑壓되엿던 共産派에 對等의 機會를 與하고 再次 兩日來 共産派는 活躍中인바 再次 上海를 不安에 導하는 것이라하야 各國駐屯軍司令部는 緊急對策協議會를 開催하야 警備區域의 分擔을 決定하고 十四日來 一般警備兵의 外出을 禁止하야 警戒를 嚴重히하고 日本陸戰隊는 各紡績其他要所에 對하야 萬一의 事變에 對한 모든 準備를 進行中이더라(上海十五日發)

反奉團結說

短時日實現은 困難?

蔣介石氏下野함에 따라서 北方에서는 反奉大同團結說이 擡頭되엿스나
一、南京政府各將의 利害反目

二、武漢政府部內軍閥의 指導

三、馮玉祥氏와 武漢政府의 複雜한 關係

四、閻錫山氏의 態度疑問

等의 難關에 依하야 短時日에 實現되기는 不可能하다 觀測되더라(北京十五日電)

外交後援會

民衆運動開始

奉天外交後援會는 十六日 胡北京으로부터 會長 丁氏의 歸奉을 待하야 民衆運動을 始作하라고 即十六日午前十一時 總商會內에 大會를 開催하기로 決定하고 十五日 各方面에 千五百枚假票의 招待券을 發送하엿더라(奉天十五日電)

露中電信會議

奉天서開催

東中鐵道沿線電信敷設工事에 關하야 露中電信聯絡會議를 開하고 決定調印되엿는데 更히 近近奉天露國總領事館에서 聯絡取扱에 對하야 細目協定의 會議를 開催하기로 決定하고 露國側委員 「칸드라드」 以下三名이 任命되엿더라(奉天十五日發)

英武官動靜

「단칸」 將軍은 十四日 威海衛로부터 歸하야 近近渡日할터이며 英國派遣軍參謀長 [illegible]

中華民國 國民運動의 眞狀 (四)

在東京 姜徹

사람들은 흔히 共産黨을 國民黨左派라고 思惟하나 이것은 誤見이다 國民黨에 [illegible] 黨員은 國民黨內의 [illegible] 外 根本부터 左派와 [illegible] 게하는것은 事實이나 依然히 共産黨이오 [illegible] 히 國民黨이다 國民 [illegible] 想과 政策이 左傾이 [illegible] 하야 그것이 곳 共産 [illegible] 할수업다 國民黨은 自己의 左派를 가지고 잇 [illegible] 그러면 國民黨의 左 [illegible] 은 結局 무엇인가? 一同大會의 前後에 잇 [illegible] 主義並軍閥政治에 [illegible] 左派이오 그럿치아 [illegible] 派이엇다 또는 [illegible]

[illegible] 共産主義라고도 命名할수 잇다 [illegible] 大同主義이다」 라고 말하엿다 [illegible] 는 「共産主義는 民生主義의 理想이오 民生主義는 共産主義의 實行이다」 라고 말하엿다 그러면 우리는 「先生의 主張하는 民生主義에 幾個의 注意할 要點을 看取하여야 한다」 (括弧는 筆者·以下亦然)

(一) 民生主義는 目的論으로서 共産主義와 全然同一하다

(二) 國境을 超越하야 全世界로 外主義實行의 對象을 삼는 意味에 잇서서는 民生主義와 共産主義는 그 性質이 一致한다

(三) 民生主義와 共産主義와는 그 哲學的 基礎에 잇서서 全然相異하다 共産主義는 辯證法的 唯物史觀으로써 理論的 基礎를 構成하엿스나 民生主義는 中國固有의 倫理哲學과 政治思想으로써 其礎를 構成한다

(四) 民生主義와 共産主義와는 그 方法論上에 잇서서 全然相反한다 共産主義는 無産階級의 直接的 革命行動으로써 實行方法을 삼는다 故로 階級專制로써 階級打破를 主張한다 民生主義는 國民革命의 形式으로써 政治的 建設工作의 上에 國家的 權力으로써 目的을 達成하려 한다 故로 革命專制를 主張하야 「各階級의 革命勢力으로써 階級勢力의 擴大를 阻止하고」 漸進的으로 階級을 消滅하려 한다

先生의 西方文化에 對한 反對는 우리의 所見에 依하면 一은 資本主義 資本主義로부터 展開된 帝國主義 그것에 對한 反對이오 一은 人 主義 物質問題로써 歷史的 中心을 삼는 階級鬪爭으로써 絶對的 手段을 삼는 社會革命思想 그것에 對한 反對이다 從하야 人類生存의 出發點으로써 彼의 錯誤를 糾正하고 社會革命에 附與된 民生的 性을 化하야 我等의 大同의 治에 達하야 「우리의 目的을 完成하려함이다 革命의 唯一手段이라고 말하지아니한다」 階級對立은 社會의 病態요 常態는 아니다

若槻前首相 十六日訊問開始

橫山禁同出廷

松島事件의 證人으로서 若槻前首相의 訊問은 明十六日午前九時부터 東京地方裁判所 刑事部新館第二號室에서 開廷하기로 되엿는데 [illegible]

日英紡績强硬態度에 中國側이 狼狽

南京政府課稅問題

南京政府가 各方面의 激烈한 反對가 잇슴도 不拘하고 九月一日부터 出廠稅賦課를 取消하지안어야할 貌樣임으로서 英各紡은 各各此 徵收拒絶을 決議하고 强制徵收를 할 際는 工場을 閉鎖하기로 되엿다 日英紡績側은 着着此準備를 하는 故로 南京政府의 機關인 工會統一委員會自費部 等은 萬一日英紡績이 工場閉鎖를 斷行하면 約七萬五千의 工人은 忽然失業者가 되야 其家族을 合하야 二十萬의 窮民을 出하야 上海에 大暴動이 起할 뜻한 으로 日英紡績의 强硬한 態度에 中國側은 苦心中이라더라(上海十四日電)

蔣介石의 下野

中政局에 一轉期招致

上海十三日電은 南京軍北伐總司令蔣介石氏의 下野說을 傳하더니 同十四日電은 武漢政府와 馮玉祥氏에 下野通電을 發하고 故鄕인 寧波로 가고만것이 分明한 事實로 되엿다 蔣氏의 이 下野는 너무나 意外로 速히 實現된 感이 업지도 아니하나 津浦線에서의 大敗와 北軍의 南下가 急迫한것과 武漢政府의 壓迫과 共히 各處의 反蔣運動이 猛烈함으로 蔣氏의 立場이 進退維谷하야 여러가지로 그 打開策을 講究하엿스나 消極的 彌縫도 안됨으로 畢竟 下野하고만것이다 생각컨대 그도 또한 風雲兒의 一人이엇다 昨年十一月에 北伐을 이르킨 以來 그는 破竹의 勢로 到處에 乘勝長驅하야 昨日에 一邑 明日에 一城을 陷落한 것도 다는 比喩에 지지안케 武昌 杭州 南京 上海 等 重要都市를 無人의 境 갓치 되얏다 [illegible] 猛烈히 攻勢를 取하야 蚌埠占領後 南軍을 浦口、揚州方面에 追擊하고 東路에서는 이미 淮安을 占領하야 一氣로 浦口、揚州까지 進出하려는 意氣이더라(北京十五日發)

그의 成功의 大部分을 占한다 하여도 蔣氏의 功은 그 代表的이라 할 수가 잇다 그리하야 그와 同時에 그는 民衆압헤 中國革命은 世界革命의 一部分이라는 等 勞働者 農民의 人氣를 끌기에도 注力하야 近代的 英雄氣慨를 보혓스니 그는 中國은 勿論 世界的 人物이 되고 人氣者가 되엿다 그러나 그는 漸次 灰色을 띄기 始作하엿다 國民黨의 決議나 命令보다도 自己의 意思와 命令을 尊重하게 되엿다 紳商과 帝國主義者와 苟合하엿다 따라 露西亞에서 蔣氏에 對한 失望한 것은 勿論이오 蔣氏의 專制에 新軍閥이 되고 下野의 一途가 잇슬 뿐이엇다 [illegible]

武漢政府는 分裂되고 武漢政府와 南京政府로 對立하게 되엿다 그러나 이에 對하야는 사람을 따라 觀測을 區區히 할 것이니 民政府分立에 對하야는 그 罪를 蔣氏에게 만 돌려보낼수는 업슬가 한다 그리고 武漢政府의 打倒 蔣介石을 隱忍自重하야 鞏而不問하고 第二期北伐을 斷行하야 山東까지 長驅한 事實은 그 人物의 非凡한 것을 엿보기에 足한 者라 할것이나 그러나 一方 武漢政府는 政府에서 國民黨左派가 政權을 改造하야 三民主義를 高揭하고 蔣氏를 驅逐하는 手段을 取하엿슴으로 蔣氏는 武漢에 對抗하야 討赤이란 口實을 일케되는 立場이 困難하게되엿슴으로 北方과의 妥協을 劃策하게되엿스니 이는 말할것도 업시 革命的 旗幟를 더럽히는 것이 오 그에 對한 一般民衆의 信望은 喪失되고 信賴하던 部下도 離反하게 되엿스니 그는 下野의 一途가 잇슬뿐이엇다 그러나 그의 成功이 顯赫하엇던 만큼 [illegible]

그에 對한 期待가 적지아니하엿던 만큼 一般은 蔣氏의 下野를 事實의 進行과 갓치 믿지를 못하엿던것이다 그리고 近日에 와서는 四圍의 情勢가 몹시도 窮塞한 것을 깨닷고 武漢政府와의 妥協을 贊成하고 妥協條件으로 蔣氏의 下野를 唐氏가 要求한것에 對하야 蔣氏는 國民革命을 爲하야 自身을 犧牲하겟다고 宣言하엿는데 이제 下野한 것을 보면 蔣氏가 最後까지 地位에 戀戀치 아니한 것을 料하게 될것이 [illegible] 南京派의 代表와 [illegible]

庫倫中心排赤運動

「몽골」 [illegible] 十六日 [illegible] 就하려라더라(上海十五日發)

庫倫을 中心으로 外蒙古 「브리야트」 族의 排赤運動은 漸漸 具體化되야 赤露는 此의 鎭壓에 苦心中이다 又 同民族의 反赤大同團結領袖數名은 庫倫에 監禁되여 잇다하야 七民은 恐慌하야 內蒙에 避難하는 者가 多數라 더라(哈爾賓十二日發)

關稅自主도 當分不可能?

蔣氏下野影響

蔣介石氏 失脚의 結果 胡漢民 吳稚暉以下 全部要人은 辭職하야 政府의 各機關은 全혀 停止되야 事實上 消滅狀態가 된 外에 關稅自主問題도 自然延期되고 外交團方面에서는 此點으로부터 該案實施는 不可能하야 列國의 協同手段은 不必要하게 되엿다고 觀測하고 잇다 但 南京政府解散에 依하야 各地軍閥이 勃興하게되야 各自課稅하라할것이 豫想되나 外交團은 此境遇에 各國一致의 態度를 取하야 어대까지든지 課稅打破를 主張할 貌樣이더라(北京十五日電)

南中實權은 馮玉祥氏가 掌握

蔣氏下野와 勞農側觀測

蔣介石氏 下野後의 南京政局에 對하야 勞農側에서 如左히 觀測하더라(北京十五日發)

馮玉祥氏의 提唱한 國民黨代表會議는 結局實現할터인데 右會議에서는 汪兆銘氏가 中央執行委員長이 되여 執行委員會는 馮氏를 聯合國民軍總司令에 唐生智氏를 副司令에 任命하고 南方大合同의 第一着手로 聯合勢力으로써 上海를 攻略할것이다 北伐軍事行動은 馮玉祥氏가 京漢線으로부터 唐生智氏가 津浦線으로부터 北京에 追擊할것이다 그리고 軍의 實權者는 勿論 馮玉祥氏로서 露西亞側은 漢者武漢政府에 對한것과 同樣 馮軍에 武器를 供給하고 其他의 援助까지도 與하야 『보로딘』氏로 하여금 其의 帷幕에 參列케하고 「쌔린」 氏로 하야금 北伐軍事總司令長이 되게할것이다 露西亞側은 南方의 將來에 對하야 조금도 悲觀치 안코 先着中에 잇더라

奉派態度硬化

張氏徹底討赤命令說

蔣介石氏 下野後의 奉天派對南方策이라고 傳하는 데 依하면 全線에 亘한 攻勢를 取하야 임이 津浦線方面의 孫傳芳軍은 南京攻略에 着手하고 京漢線方面의 態度曖昧한 閻錫山氏도 遂히 最後의 態度를 決定하야 十四日 張大元帥에게 赤討에 잇서서 共同行動을 取한다는 電報를 하엿다 南京武漢兩政府가 合倂될지라도 全혀 烏合之卒 姓時의 國民黨政府와 가치 거의 武力을 所有치 못한 政治團體에 不過하야 大勢는 全혀 奉天派에 有利하게 된다 하야 此際 徹底的으로 赤討을 하기 爲하야 張作霖氏의 名으로 命令을 發하엿더라(奉天電)

張作相濟南行

外務省着電

着電에 依하면 張作相氏는 海軍檢閱과 山東鐵道를 視察 [illegible]

蔣氏下野로 多事를 暗示

張宗昌氏談

十三日 濟南發青島에 向하엿더라 蔣介石氏 下野의 報에 來青中의 張宗昌氏는 別로 깃버하지 안는다하며 武漢南京의 妥協에 依하야 도로혀 多事할 것을 暗示하더라(青島十五日發)

東路도 淮安占領

浦口揚州에 進出

孫軍、明光占領

南軍守備에 苦心中

十二日 蚌埠를 占領한 孫軍은 王天培軍을 一蹴하야 勝에 乘하야 明光에 追到하야 三十六時間을 激戰한 後 十四日 遂히 占領하엿다 南軍은 陳調元 葉開金 賀耀祖 曹萬順의 約三萬으로써 滁州方面에서 指揮하야 其間各方面으로부터 侵入을 警戒하면서 近近湖北을 占領에 大打擊임으로 人心이 動搖되는 中이다 그럼으로 周鳳岐는 二十六軍으로써 杭州方面을 白崇禧는 上海南京間을 何應欽은 南京一帶를 警備하고 李宗仁은 蕪湖方面으로부터 第二軍에 援軍을 命하야 各軍共히 守備에 苦心中이다 又 王天培는 蚌埠에서 掠奪後 背反하려하엿스나 失敗하야 行先不明이 되엿더라(上海十五日電)

蔣介石下野로 日政策變化

山東出兵도 遲延?

蔣介石氏의 失脚은 日本對中外交에 更히 一變化를 招致할을 未免하리라 觀測하고잇다 日本政府는 最近까지 蔣氏의 失脚을 豫想치못하엿고 東方會議와 如한것도 南中의 中心勢力을 蔣介石氏로 認定하야 芳澤公使가 數日前 歸任의 途中 南京에서 蔣氏와 會見한 것도 此를 反證하는 것이다 即 蔣氏의 下野는 自然 日本對中政策의 目標의 變更을 不得已하게 하는 것인바 更히 此에 依하야 北方政府의 異變도 잇슬것이오 最近擡頭한 山東撤兵問題도 이제 더 今後의 形勢推移를 注視한 後가 아니면 決定치 못할 狀態에 陷하엿다더라(東京電)

別報

蔣介石氏下野에 對하야 外務省에는 아즉 公電은 업스나 右에 對하야 日本政府는 元來 南京政府를 承認한것이 아니고 蔣氏와 個人的으로 關係하던 것도 아님으로 此際 南京武漢兩派間에 完全한 合同이 行하여도 此에 依하야 日本政策에는 變更이 업슬 것이오 對南方政策은 依然從來와 갓흐리라 더라(東京電)

中國은 中國人中國

張作霖氏聲明

張作霖氏는 北中大元帥로 外國新聞記者團에 大要如左한 聲明書를 發表하엿더라(北京十一日發)

一、予의 外交方針은 列國과 公明的 外交를 行하야 小策을 避하고 率直으로써 其第一義라고 信한다

一、列國과의 通商貿易은 共存共榮의 精神에 基하야 發達을 期한다 그러나 在中外人은 間或不平等條約의 結果 中國人以上의 權利를 享有하는 者잇스면 漸次 그 立場을 均等케 하려한다

一、外人宣敎師가 傳敎에 從事하는 以上 自由、生命財産의 絶對安全을 保障할 것이나 萬若 政治運動에 加入하면 右保障을 할 수 업다

更히 共産黨驅逐?

李濟琛氏와 諒解成立

張發奎氏 南昌서

第二方面軍總指揮 張發奎氏는 南昌으로부터 更히 決定하고 李濟琛氏와도 諒解가 成立된 故로 朱培德氏는 長沙로부터 歸去하야 九江에 下하기로 되엿다 江西는 朱培德氏의 地盤이 되는 貌樣이더라(漢口十二日電)

一、列國에 對하야는 어되까지던지 友誼를 旨로하야 開爭을 避할 에 잇스나 根本的 大方針은 中國人의 中國이다 따라 列國의 友誼的 勸告는 歡迎하나 萬若 그것이 命令的인 時는 斷然코 拒絶한다

一、對外借款은 可及的 速히 償却할 中國의 國家名譽라고 信하고 平和時代到來와 共히 內政을 整理하며 堅實한 方法에 依하야 漸次 對外借款을 償却하겟다

浦口에도 砲聲

滬寧線當局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津浦線의 北軍은 長八嶺에 迫하고 南京軍은 徐州에 集結하면서 激戰 中임으로 十二日은 浦口에서 砲聲이 들니엇는데 此는 南京軍의 一部가 背逆한 것이라고 觀測되더라(上海十二日電)

쌔린氏歸國

武漢政府軍事顧問 「쌔린」 氏는 九日 京漢鐵道로 北上歸國의 途에 就하엿더라(上海十五日電)

天津의 奢侈稅

十四日부터 徵收

天津에 在한 奢侈稅는 遂히 十四日부터 徵收되야 日本商人은 條件付로 納稅하기로 決定하엿더라(天津十五日電)

軍隊彈藥을 續續南京에 護送

更히 上海로 退却

津浦線方面에 잇든 軍隊와 彈藥類는 續續南京에 護送되고 更히 滬寧線으로 上海、蘇州에 護送되는 中으로 目下 全力을 擧하야 退却中이더라(上海十五日發)

露、土兩國間 國境協定成立

露、土、阿聯合에 影響重大

土耳其首府 「앙고라」 로부터 發表된 公報에 依하면 露土國境에 關한 問題에 就하야 兩國間에 協定이 成立되엿는데 此에 關하야 「콘스탄」 의 노를 」 의 報道는 右協定의 內容은 兩國間에 宿題이엇든 交涉의 結果로서는 너머 貧弱하다 今回 成立의 協定은 더욱 取할만한 것은 勿論 露西亞、土耳其、「아부가니스탄」 三國合이 最近世上에 論議되는 것으로 보드라도 明白하다 하더라(나우연十四日電)

南米보리비아에 인듸안의 反抗亂

共産的色彩加味?

南米 「보리비아」 全國에 亘하야 「인듸안」 種族의 白人에 對한 反抗的 暴動이 起하엿다 其數는 約五萬을 算하야 임의 農業地에 進出하야 農家及倉庫等을 襲擊하야 掠奪及 放火를 行하는 中이다 그리하야 「포토시」 地方의 鐵道는 危險에 瀕하엿다 此暴動은 共産的 性質을 帶한 것으로 傳하야 軍隊가 出動하야 鎭壓에 努力中인데 「인듸안」 의 死傷者는 多數에 達하며 其首長 五十名도 逮捕되엿다 「곤사레스·포로아」 氏는 目下 大元帥에 任命되야 暴動鎭壓의 任에 當하야 共産文書撒布嫌疑者 多數를 逮捕하엿더라(라파스十五日發)

滿蒙對策協議

大連會議第一日

滿蒙對策協議는 十五日午後一時부터 旅順의 關東長官官邸에 開催 兒玉關東長官、吉田奉天總領事、武藤關東軍司令官、松井張氏軍事顧問 等 出席하야 芳澤公使로부터 南京政府要路와의 會見內容、吉田總領事로부터 排日에 對한 說明이 잇슨 後 此의 解決策에 對하야 協議하엿는데 重要問題는 方會議의 決定에 基한 具體方法에 對하야 協議하엿는데 其他에 對하야 本日 中에 終了되고 其他에 對하야는 更히 數回 協議할터이라더라

右에 關하야 憲政會代議士 辯護士 橫山勝太郞氏는 十五日 東京地方裁判所에 今村所長을 訪問하고 前官禮遇인 若槻前首相의 待遇에 對하야 懇談하엿다 又 明日 訊問에 際하야 若槻氏는 橫山辯護士를 帶同 出廷할터이더라(東京電)

齋藤氏는 歸國後留任

某親近者談

「제네바」 三國軍縮會議에 出席한 齋藤全權은 九月中에 歸國하기로 되엿슴으로 발서부터 朝鮮總督으로서의 進退問題가 內閣部內에 話題가 되여잇다 一般으로부터도 注目되여 잇스나 同子와 갓가운 某氏의 觀測에 依하면 齋藤子는 出發前의 意嚮으로 보아도 歸國後 辭任할 模樣이 업고 內閣方面에서는 齋藤子의 歸國後 辭任하야 宇垣代理總督이 總督이 될 것을 希望하고 잇슬 것이나 田中首相으로서는 齋藤子에 對하야 退하라고 할수업는 事情이 잇서서 特別한 事情이 업는 以上에는 辭任치 안 으리라더라(東京電)

消息

▲李秉璉氏 (朝鮮農人社員) 社務를 帶하고 昨夜 海西方面에 出張

△白南奎氏 (延專敎授) 故元杜尤氏 紀念表彰事業寄附金募集次 江原及咸南道地方 出張

△劉基峻氏 同上

橫說竪說

◇ 「볼리비아」 「인듸안」 族約五萬은 反抗運動에 出하엿다고

◇ 人種的 感情에 激怒한 그네는 忿하엿고 經濟的 壓迫에 快하겟지!

◇ 蔣氏下野로 妥協派 李宗仁氏가 南京政府의 實權을 把持하엿다고

◇ 下野한다든 張氏는 健在, 下野식이 려든 蔣氏가 下野, 그러면 李氏는 또 엇더케나!

부인강좌 家庭生活과 自然科學(一)

京西學人

과학은일종의전문지식이니까 보통사람은 별로 몰라도조타 이러케 생각하는사람이 만흠니다 과학자란혜성의꼬리나재일죽 알고 화성에사람이 잇다업다 는짐이나 하는것으로 실디생활과는먼물건이라생각하는이도잇습니다 멀어보이는 과학 실생활과는 관계가업서 보이는과학이 실상은우리생활과 중대한 관계가 잇습니다 조선의농부도 비료에는 감리 웅린(燐)암모니아가필요한줄을배우게 되엇고 현대식주부는칼로리와비타민과단백질 지방의뎍당한 분량이 신데에필요 하다는것들을 배우게되엇습니다우리의가뎡던 긔와까스와석탄과랭장고와소독약과유성긔와라되오가늘어가게되엿습니다 칠이날근포드자동차의발동기 리는 소리가 방방곡곡이들리게되고 물을올리는폼푸의위력이평화한농촌의 잠을 깨우게 되엿습니다 긔차긔선뎐차뎐신뎐화는 우리살림에 업스면 안될필요품이되고 이태리와 로서아의비행긔가 조선의공중을어지러이하게되엿습니다

◇

우리의조상들은 비교뎍 과학을몰르고 살어왓습니다 그들 외상용하던러서는 정밀한 과학의산물이엇지만은 누구나 려사의원리를 알고서 아니하엿습니다 알필요가 업섯습니다 나리에서 발표하는대로바다서 받아갓스면 되엿습니다 다커녁에지는해와 봄여름가을엇다동그는달과아츰에도 가을저울의 긔후의변천은 그들의육안(肉眼)으로쉽게관찰할수잇는것이엇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우리는그러케살수업습니다 과학에대한상식이업기때문에우리는언제생명의위해를당할지도모를것임니다 과학에대한리해가 업기때문의우리의생활의능률은낫고 생활의취미와리익의 대부분을잃어버리는것임니다

◇

가뎡을중심으로하야 필요한과학뎍지식의 종목을들자면 첫재로신데의 구조와질병과 그원인및대책에대한 상식이 필요하겟습니다 우리몸은복잡한긔계요의사는 그긔계를수선하는 사람임니다 그러나 긔계를부리고 원동력을공급하고 기름칠하는사람은 어렸을때는부모요 커서는나자신이됨니다 공장의긔계마른 기사는전문지식과경험이잇서야하고 사람닿아서 만흔봉급을주고 사람을택합니다 그러나모든긔계중에가장복잡하고섬세(纖細)한긔계인 신데를부리는긔계사들은 그긔계의조직도 모르는이가얼마나만홈니까

◇

위생, 뎍당한음식, 소독, 질병의예방, 치료, 뎍당한운동, 휴식등에대한지식은모든사람이반드시가저야할것이어니와한거름더나가서사람의 행동, 생각, 감정등을연구하는심리학에대한상식이생활에필수한것이라함을주장하고십습니다 (계속)

오래살으라면 채소를먹으라

動脈硬化說者들의主張 食鹽水常用도有益

이세상에는 누구를 물론하고 장수(長壽)하고십허하지아니하는사람은 업습니다 이것은인류가이세상에생긴후 이때까지변함이업는것임니다 만리장성을 쌋코 아방궁을지은 녯날진나라 시황(始皇)으로도모든것에다만족하엿스나 장수만은 이력으로할수업다고 탄식하야 불로불사의선약(仙藥)을찻노라고애를쓰다가 말엇습니다 그것은물론허황한일입니다 불로불사약이잇슬리가만무합니다 그러나너무속히늙고 쇠하여지는것은 원뎡한뎡도까지막을수가잇는것이니 그러함에편한음식물에대하야소개하겟습니다

肉食을避하고 菜食을主로하라

사람은모든동물에비하면가장만흔종류의식물을섭식(攝取)합니다 이와가치 만흔종류의식물을먹는중에 건강이유지되어생존하는것이니 그중에 자양분이 섞저잇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그만흔종류중에 어느것에가장필요한성분(成分)이석거잇는지는 알기어려운일입니다 이것에관하야는만흔학설(學說)도잇습니다 그러나그학설들보다도 녯날로부터싸하온 여러몃만사람의경험도 또경시(輕視)할수업는것입니다 보통말하는로쇠(老衰)라는것은건강한사람으로서 사십오세경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인간생활의자연의현상이니이때가되면동맥(動脈)이점점경화(硬化)하여감니다 이것은 뎡하여노흔운명이나 이력으로 엇지할수업는것이지마는 식물에대하야 주의하면그속도만은 가감할수가잇습니다 동맥경화(動脈硬化)즉혈압항진(血壓亢進)을막는것이 가장긴요한일이니 그것을위하여는 다음가치 음식에주의하는것이 조흡니다

害로운刺戟物 果實은多多益善 사탕과과자는덜먹으라

매일로 소고기 제육등의 수육(獸肉)또는기름이만흔어육(魚肉)을 먹기하는것이좃습니다 충분히섭취된것은 아니지마는 유효한것은 사실입니다 또특별 술은 한로력도드는것이아니나 여하한것을물론하고 다해롭습니다 될수잇는대로 채소류를상식(常食)하는것이 조흐니배추종류오이종류 일년감 련근서양파(玉蔥)기타모든채소는다유익합니다 또김 멱 다시마등의 해초(海草類)도만히먹는것이좃습니다 사탕과자등 단음식은만히먹지아니하는것이 조흐니 당분이라는것은 신데속에들어가서는아로콜과가튼성분으로되는까닭입니다 담배를만히 먹는것도해롭고 고초 휘초 개자등자극성이만흔것도해롭습니다 부모를가진분들은 꼭실행하여보시요(쯧)

보리밥도조코 食鹽水도조타

그다음으로 먹어조흔것은 과실이니 림금 밀감 감 파나나 무화과 배 복숭아등은좃파식하여도 조흘만큼 신데에유익함니다 잘소독한우유 기름써진 수프도좃코 약을쓰는경우에는 될수잇는대로는 식물성의 약을쓰는것이좃습니다 밥은쌀밥보다도 보리밥이좃코 떡떡로죽 쌍음먹은것도좃습니다 그러고세간경험으로보면 매일습관뎍으로 식염수(食鹽水)를먹는것이유효합니다

이상에발한바는 의학상으로

家庭雜記帳 (살림에요긴한지식)

숫헤쇠가나지안케하는간단한방법은감자나겨를물에풀어두어번식일것

구두약은물에석기지안는것이조고봄에는잘나는것이또 라조히에발라서조히가투명하게되지안는것은납뿐것이다

목쉬데에약은붕산(硼酸)결정콩알만한것을입에너코녹여먹으면조타

과자나사탕눈그릇에개암이가울르면칼을잔갈아서발리워서노으면개암이가다다라난다고

설탕은명어리업는것이조타 딴딴한명어리가잇는것은납뿐사탕이다

朝鮮少年文藝聯盟 平安道巡廻童話

경성견지동조선소년문예연맹(朝鮮少年文藝聯盟)에서는십구일부터 김병진(金炳鎭)씨가순회동화의길을떠나게되엿다고

十九日 黃山 二十日 鎭邊 二十一日 价川 二十五日 博川 二十七日 安州 二十九日 中和 三十日 歸京

音樂大會를開催 婦人夜學을爲하야

성진(城津)긔독교청년회에서는 부인야학을위하야 십삼일오후팔시에성진좌에서시민위안음악대회를열엇다고(성진)

어린이소식

◇龍川納凉音樂講演 평북녕변(寧邊)동산어린이학우회에서는 십사일하오구시에 동회관에서납량음악강연대회를열엇다고(녕변)

◇義州少年創立紀念 평북의주소년회 창립긔념식을 십사일오전구시에거행 오후령시부터군령코ー트에서 긔념과목(木版)뎡구경기가잇고오후팔시에는긔념강연이잇섯다고

◇少年會聯合童話會 십사일오후팔시반에의주읍긔독교소년회및의주소년련합으로김래오씨를청하야 동화회를열엇다 (의주)

◇公州少年雄辯大會 충남공주소년소녀회(公州少年少女會)주최로십륙일오후일시에 당디금강관에서 소년소녀웅변대회(雄辯大會)를개최할터인데연사는다음과갓다고(공주)

文秀天(一二)閔庚武(一三)金萬濟(一七)李炳奎(一四)朴鍾喆(一四)張柱東(一六)李泰奉(一二)崔瑗伊孃(一四)徐相熙(一六)朴炳喆(一三)金燦基(一三)

붉은다리의류행 동경의모던열중에

동경은좌(銀座)의 모던열은양장을하고 눈양말을신지안코 버슨다리의육데미를발휘하고 단념으로문데를닐으켯다는바 남녀를불론하고 발벗고나서기를조곰도 괴상히생각지안는일본에서도 양복을닙고ㅣ뎌구나정갱이치는 양복치마밋헤ㅣ붉은 다리를들어내는것은 풍교상조치못하다고문데가되것이며 류행의시작은 로서아연극단의녀배우 들이먼저본보기를보여준데이섯다한다

朝鮮舞踊振興論(六)

金東煥

그럼으로이제舞踊의機能을살펴볼때에 그는一面으로身體의諸器官을 發達시켜敏活하게健康하게하는以外에 氣象을雄偉하게하는것이며 또多數人이群舞하는데서 群衆心理를利用하야크게協同精神이나 大衆的鍛鍊을주게할수잇는것이라 協同精神이나 雄健한氣象을잇는다는것은 오늘의우리네에게는絕對로必要한것인즉 우리는尙武的…을排除하고新舞踊運動을이르케야할것이다 外國가튼데서도只今은舞踊을國民教育用에쓰거나 軍事教育用에쓰고잇나니 審美的情調를涵養하는外에 團體的訓練을주게됨과 擊劍이나狩獵가치 어느程度의尙武氣風을養成해주는 效果가잇는때문이다 더욱西班牙에서는 地方官의支配아래에 全村民으로舞踊團이全國各地에組織되야 常國民的教練이씨운다한즉 實로 泰西에서는널니農村에서부터學校에까지 教化의要具로씨어잇는現狀이라 그럼으로벌서舞踊은淫蕩한것이라거나 娛樂또는消耗를주기爲하야잇는것이아니라 熱々한氣慨의鼓舞나團體的敎化의要具로씨어잇는터인즉 우리네가치 온갓群衆的活動의機會를일흔大衆에야 이舞踊運動에서 얼마나한功効를엇으랴 첫재多數人이 가튼情熱속에모히는機會를만들고 倦怠와困憊와 無力의化身가튼現在의大衆들을크게進取的方面으로 刺戟주어氣象을振作시킬수잇슬것이다 舞踊을指하야遊逸惰弱의習性을養한다하지마라 그는舊조아舞踊의新變한스외에 업는것이다 엇재든우리는大衆的教練을가미리고잇는 여러民衆에게 이舞踊을通하야 不和的武裝을 시키는同時에 共同的犧牲的精神을養하야 朝鮮民衆의意氣를크게鼓舞하여야할것이다

新舞踊의性質은첫재群衆的일것 둘재野生的일것이어야하겟다 群衆的이라함은共同的利害에웁지기거나또는一定한地域的限界內에居住하야共通된觀念을 가진한村落人及都會의한居所이 同一한場所 同一한時刻에集合하야 따로히特殊舞技者가觀客이 업시 제自身이곳演舞者가되야춤추자는뜻이니 그럼으로場所가 는것도너른벌판이나숩속이나船上가튼데가조흘것이다 우리는 野風을背景으로扮裝에만拘泥하는 職業的舞師의演新한 맛이업슴과 一般的이아닌理由로 생차안는다 우리의第一主眼이 環境을가치한一單位群衆에게共通된興奮 共同된喜悲를주자는 것에잇슨즉 이와反對되는獨舞的個人的인今日舞踊은排擊하여야可할것 이라맛는바이다 日本의神田祭禮나滿洲蒙古의「포ー크●딴스」가튼것도 다 五月初夏의野外에서全村民이大擧群舞하는것이며 또伊太利의가나발祭禮가튼것도 다群舞하게되여잇다 그는群舞함으로부터演舞者는서로 男性的快味를늣김과同時에오락과競技에參加하는것가튼競技熱을가질수잇고 또組織的인것만큼簡易한演劇에出演한것가치 有機的操練을맛볼수잇는때문이다 新時代의舞踊은반드시多人數가하는群舞이어야하겟다

稻香의文學的輪廓(上) 그의一週忌를만즈면서

李殷相

稻香羅彬君이 別世한지벌서滿一週年이다 朝鮮文壇을아는사람은 이天折한大才를닛지 못할것이다 忌日을當하야 李殷相君의 이 一編으로그를追憶함이無意義하지아늘가한다

雜誌나新聞의文藝欄이文友稻香의追悼號를 發行한다는것은 稻香과의交友的意味만에그意義를두는것이아니요 一般文壇에有義有効한일인것을 알앗기때문이라고밋는다

한개의詩歌한개의小說이다만 그斷片的인生命을維持하는以外에더體系的인組織的社會的인데 써더나가고더흡더나가고더성싱해가는久遠한生命을 가지지못하고마는 우리에게이러한機會가잇서 한故友의作品일망정그 作品을다시鑑賞하고그文學的輪廓이나 文學上의地位를 再論하게된것은 昔한일의하나이라고아니할수업다

×

因論文化라는것이文學만을意味하는것은 안일지언정今日에 잇서文化進展의遲延衰態한그所以然속에 이것이한關聯的關係的인 것은分明한事實이라할것이다 그런故로우리가가고업는稻香의作品을다시금 들추어내여우리의記憶을새롭히고 그文壇的存在를 더욱더뚜렷이하랴는바는 다만交友的親誼나 文壇的意味만을 가진것이아니요社會的으로까지 그뜻이잇다고하여도그리溢美한말이아닌것이다

×

그러나作者ㅣ일즉이故友의作品을通讀치못하엿고 또시방手中에 知行本한卷도된것이업시 다만雜誌에서 하낫두낫讀過하던그때그때의印象이나 感銘의記憶만을 직히고잇는것뿐임으로評質的態度로이論陣에나설수 는업는것이다 그럼으로이文을 오히려追憶的인感懷를 本位로한印象論이라함이 더맛당할듯도하다

어느한作家의文學的作品은그의環境과 生活과才質과資品을 相映하야 創作되는것이다그만큼그作品을 鑑賞하거나批評하거나 하는때에도亦然히그作家의生活其他를對照考究하는것이 必要한것이라아니할수업다

稻香의生活과環境은 그로하여금 엇더한作品을創作케하엿는가 그의文學的思索과研究와 創作은그로하여금實際에잇서서 엇더한生活意識을가지게하고 엇더한態度로 生活압헤서게하엿는가 『피무든편지멧쪽』속에서보면 潮落된 自己의生活을自嘆하여 『나의生命에는 아모빗(色)도업고 『하모니』도업시 다만시드러지는꼿도갓고 줄끈허진樂器와도갓흠뿐』이요 『압흘가리는 것이 絶望의 그림자뿐이어서 부지럽시 哀傷의깁흔곳으로만 질뎌름뿐이라하엿다

自己를 가장正直히 가리움업시 나타낸말이다 世上에는主義나思想을두려워하여 어느瞬間의切實한 自己의位置에 對한反省이나懸悟를 그대로表現치못하는일이만흔나 이것을 몰진던 稻香은 이小說을通하여 自己 그때의늣김 그때의 位置를 가장正直히말한것이엇다

이만큼 그의生活은 孤獨에서 苦悶으로 哀傷으로 또다시孤獨으로 이리하여 그는그 멧時間못되는 一生을 넘겨버렷다

×

稻香은그生活에나타난대로보아 悲劇的인 運命을타고낫던 애닯은 사람이엇다 『내마음은 언제던지빈듯하여 마치봄철에 노는한陽地짝밋헤서 멀리멀리 밀녀어가는 게집애의피리소리를 듯는것가치 마음이말할수 업시 凄凉하고 슬픔뿐』이란말을할만큼 설은 사람이엇다

그가京師의十字街에 數三友의엇개와나란히서서 몰아다닐때에나 江原, 慶尙으로定處업시 漂迹하엿슬때나 海外에方向업시떠서 自己가自己를 건사하지도못하면서 故國의따뜻한情을 모르는냥, 니즌냥― 아니 故國은 그에게故國노릇을한적업지만―하던그때나그래도 제땅이라 차자와서는 쓸쓸한 빈房에홀로누어 壁을대해 壁처럼沈默을직히든 때나 그一生은 그러케도 凄傷하고설은것이엇다

그만큼 稻香은슬픈사람이요 그의作品은 어느程度만치의 『센티멘탈』한氣分을 가치겟는자 미리짐작하고도 남음이잇슴만 …分明히나타난일이라할수잇다

凉榻漫筆 夜市雜感(下)

李殷相

×

夜市場의소리가한갓「와ー」하는소리인줄만알아도 其實하나식들어보면 별별소리가다잇는것이다

數千里東으로 갓싸온中國人의內服파는곳 압흐로지내간다 內服한벌을쥐고『졈어보이는內服사해의옷이넘으면 안늙어해!』果然그럴듯한말이다 늙지안는다는것이 그러케도조흔것인가 괴로운世上일망정사는것이죽는것보다 取할만한줄 한일일가

그러타면百몃千年이라도 사는것이조흔일이다 살아노코볼일이다 그리고는사는데에도졈은대로살아야 조흔일이다

그러나不幸한人生은百年을더 살지못하고 거긔서도졈문이란 暫間뿐이것이다 녯부터늙지안흔사람이업고 죽지안흔사람이 업는것이다

『蘊馬放妓、結社香山、自號香山居士』(늙으매 말도 쓸데업고妓生도 혀것일다 社를香山에지엇스니 인제는 號를香山居士라고나할가)이말은詩人白樂天의늙어서 한말이요『試拂鐵衣如雪色、聊持寶劍動星文』(쇠옷을 털처보니눈빗갓고 칼을들어보니 별문채가번득인다)이것은漢나라의將帥李廣이의 늙어서嘆息한소리요『聊試鞍馬而求用、以日一就見來』(말안장을하고 다시써주기를 구하엿스나늙어괴운업서 하로에동을세번식이나 누는일모바람을보앗다)이것은 趙나라의將師廉頗가 이야기다 『미마에 너를보니 有信코반가웨라 나너믜敗인거너를라고다니더니 이後란소頭에서잇다가 날리세고단녀라』이것은金光煜의時調요『어우아날속엿구나 秋月春風이 날속엿구나節節이 돌아오매 有信하만녀엿더니白髮을날다맛기고少年좃녀이거고나』하는것은失名氏의老嘆을 한古時調이다

漢武帝를차자간 即老方을안다는方士李小君이나 李小翁이이날에 엄거던이에뉘를차자 却老하는術方을들을수잇스리

周易의象數이나 晉博의 …을千萬高한위가아니라 … 및나라의「連山」과殷나라의「歸藏」을다시차자내여 太地의易法을通曉한다 하더래도 늙지안는術方은 알길이업는가보다

이中에호올로內服장사의廣告詩가 늙지안는術方을가르처준다

不過七八十錢에 却老衣를닙을수잇는일이나 그야말로속을 심치고라도 몃번은속아볼만적 한일이것갓다

그러자밤은깁허젓다 하늘에 별들은와ー市場의 안탁가운 現實의싸홈마당을 내려다보고 微笑를내리는냥 반작이고잇다 (쯧)

漢詩

灌陽吟社第五回考試榜目(續)

二等 又 全羅北道南原郡 蘭■ 梁■洙

飽經風霜氣不微松儔梅侶冷相依婆娑弄照空江淨黯淡香隨白月飛凍亦甘心冰是骨瘦能無病雪爲衣一聲清笛勞鄕夢歲暮關河客未歸

四等 又 平安北道宣川郡 金長庚

雪裏開花體弱微橫斜墻角影疎依色姸可喜春先到香動猶嫌蝶不飛美態晉聞黃蠟額淡粧今見素羅衣探芳緩步寒山路手折一枝揷帽歸

笑門萬福

비행사가 공중에서 곡예(曲藝)비행을하면서연기로 시가렛트라고글자를쓰다가 T 싸지와서ㅅ스펠을니저버렷다 동승자보고『여보게얼른 자뎐좀차저보데 시가렛트에T 싸가하난가둘인가』

遺物

『압집할머니가죽을때에 遺物은 말음 孤兒院에다가寄附하엿다네』『그것참특한일일세 그래遺物이란것이어떤것이든가』『계집애여덜명』 (金泰用)

◇

어떤젊은사람이 가죽어가면서친구를보고 『아 여보게나는죽네 영숙씨한테가거든내가죽으면서영숙 일홈을부르면서죽엇다고해주게 내가평생에귀하나만사랑하다가죽엇다고해주게 그리고숙희씨한테도 가든말로 전해주고 또시간이잇스면 혜경씨한테도그러케말해주게』

新刊紹介

◇速記研究(第八號)日文速記에關한雜誌 (十錢) 京都市進山町下本東入京都速記研究所振替大阪五五二六四)

音樂과演藝

=映畫巡禮=

「赤字」 리리안기쉬主演

청교도(淸敎徒)의정신이극단으로세력을 가지고잇던 십칠세긔의중간에미국『뉴잉글랜드』의 엇던청교도의 촌락에서 생긴비극이다 촌락에서 재봉업으로살아가는『헤스터』라는녀자는성질이쾌활하고 뛰놀기를 조화하는고로엄격하기를 위주하는촌락사람들의 경멸을바덧다 그러든중한번은 안식일에 질탕하게놀앗다는최로 례배당목사에게 견책을밧고 례배당에가치게 되엇다목사는비교적은정이잇는사람이엇슴으로『헤스터』에게를도주고위로도하여주는동안에 부지중젊은남녀는 서로 사랑하기시작을한것이엇다 한편은촌민의큰대숭배를밧는목사한편은극단의부박한 녀자로 치위를밧는『헤스터』그들의사랑의결과는엇지될까

목사가다른디방에 전도차로간동안에『헤스터』은애기를해산하엿다 목사가도라와본즉 촌민은『헤스터』를잡아다가필목에고랑을채우고가슴에는간부(姦婦)라는말의 첫글자인 A자를판박엇섯다목사는 곳자긔도가치형벌을밧겟다고하엿스나『헤스터』는그것을말리고 절대로남자의 일홈을입밧게내지안엇다

그뒤에『헤스터』가영국서결혼하엿다가 행방불명이된 전남편『프린』이일홈을고치고그촌락에나타나서 그들의비밀을 발견하고그들을괴롭게 굴기시작하엿다두사람은 할수업시 촌락을떠나도망하기로하고『헤스터』의가슴에서 A자를떼려고한즉 어린고런진한아희는A자의의미도모르고그것이 자긔어머니에게 반드시부터잇서야하는것으로알고다시부치기까지는 울음이지를안엇다

목사는여긔크게감동되어자긔의죄를 고백할결심을하고 일요일에전촌민을 불내게한 설교를하야『헤스터』와통한남자가자긔인것을말하고『헤스터』가A자를바든동시에자긔도가슴우에새엿던긴밝A자를여러사람에게보엿다 그는스스로 형대(刑臺)에올라가서『헤스터』의팔에안기어죽엇다

라듸오

八月十七日水曜

○午前九時五分定期放送 ○午後零時卅分講演訓民正音에對하야(第二日)梁大宗 ○一時卅分定期放送 ○六時半管絃樂數曲 松竹管絃團 ○스포츠뉴쓰 ○映畫解說快傑 조로 金永煥外 ○ D S管絃團 ○南道短歌數種 金秋月 ○뉴쓰天氣豫報明日푸로그람發表時報(七時五十分頃)뉴쓰天氣豫報 ○趣味講座電氣의이야기長島俊一郎 ○常盤津松島 ○落語林呂之助 ○翌日順序發表

一隅임도不拘하고 日人村만重要視

遞信局에서新馬山決定에 舊馬山선또다시陳情計劃

馬山郵便局移轉位置問題

馬山郵便局은馬山府西便一隅에置하엿슴으로一般府民에게不便이多하야오래前부터移轉運動을하여오든바遞信局에서今年度에는新馬山驛前으로移轉新築하기로決定되엿슴으로馬山府에서는下敷一千三百圓을들여驛前道路까지擴張하기爲하야府協議員會에附議하엿다가旣爲移轉新築할問題이면馬山府中央地帶인馬山地方法院附近鐵道用地에다移轉하는것이最히適當하다고遞信當局에陳情交涉키로決議되여道路擴張問題는撤回되고寺島府尹에게一任하야上京交涉키로하엿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交涉委任을바든寺島府尹은去十日에上京하야遞信當局者와交涉을하고十三日에歸任하야去十四日은日曜日임도

不拘

하고午前十一時에府協議員會를開하고交涉顚末의報告가有하엿는바遞信當局에서는郵便局移轉位置를變更하지안코旣定한新馬山驛前으로固執함으로變更交涉은破裂되엿다는데그가치固執하는理由를듯건대郵便局位置를驛附近에다置하여야될必要는郵便物運搬時間經費等經濟上關係를보든지또는新馬山(日本人村)을本位로삼아야될點을보드라도新馬山驛前에다移轉함이最히適當하다고力說하엿다한다

二番松原早藏氏가起立하야遞信當局에서力說하는理由는當局의內部事情에不過하고多數府民의便利를不顧하며住民이多數인舊馬山을無視하고住民의小數인新馬山을本位삼아主張하야中央點을不取함은大衆을本位삼는現政에違反되며新舊馬山聯絡과馬山發展에障碍가된다고

熱辯

을吐하야攻擊한後中央說을第一先唱한舊馬山에主唱하든七番本田某(新馬山側協議員)가起하야距離가不過幾町步差異잇는位置로써變更運動에努力할必要가업스며舊馬山住民의活動이不足하야通信機關이不完全하다는等不條理한言論이잇나자十二番高田開氏가起하야遞信當局에서主唱하는理由는府民便利는一毫도不顧하고日本人多數居住하는新馬山만本位삼는것이며馬山府政은根本差別的이라一國家에比하면新馬山은本國에施設과如히完備하게되엿스며舊馬山은領土와如히施設이不完全하게됨에對하야는權利업는朝鮮人으로는呼訴할곳이업스나遞信當局까지이와가치新舊馬山을差別하야郵便局位置를新馬山驛前에다主張함은不公正한主張이라할수잇다고痛論한後場內空氣가緊張하여저서議事를進行키困難하게되여更히善策을講究하기로고閉會를宣言하엿다하며郵便局移轉位置를新馬山驛前에다主張하는當局에對한舊馬山住民의非難이甚하야更히遞信當局에다陳情書를提出하기로한다더라(馬山)

兩團合同

青年會와親睦會

安城邑內우리親睦會에서安城青年會에解體勸告文을發送하엿슴으로同青年會에서는우리親睦會를反動團體라하야撲滅하기로決議하고互相反目中에잇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이에對하야去十三日青年總同盟特派員體組勝京畿道青年聯合特派員任允宰兩氏가當地에到着한機會에青年會代表者金台榮、金相鎬、朴總儀와우리親睦會代表者金光一、李光、朴容[?]諸氏가本支局內에會合하야兩團幹部及特派員兩氏의立會下에互相討議한結果靑年運動의精神에統一促進하자는誠意로左記와갓흔決議가잇섯고靑年會에서는同日臨時總會의決議로兩會合同을承認하엿다더라(安城)

一、우리親睦會에서는安城靑年會에發送한解體勸告文과通告文을取消하기로함

一、安城靑年會에서는發表한公開狀中우리親睦會에關한警告文을取消하기로함

一、安城靑年會와우리親睦會名合同하는同時에安城靑年會名稱及綱領下에合同하기로하고우리親睦會는解體하기로함

重要案件決議

安城青年臨總

安城邑內安城青年會에서는去十三日午後八時本支局內에서臨時總會를開하고執行委員長金台榮氏司會로會館及安青學院敎室建築狀況、安青學院講師辭職事件우리親睦會에對한事項安青學院經費收支狀況等을報告하고左記와가치決議하엿다더라(安城)

一、建築費不足額補充方法講究의件은執行委員會에一任하야安靑學院後援會와協議決定케할일

一、七月二十九日執行委員會의決議에依하야發表된公開狀에揭載한安靑學院紛糾事件우리親睦會에關한事件朝鮮中外兩日報中傷的記事等에關한執行委員會의處理는正當한措置로認함

一、七月二十七日中外、朝鮮兩支局記者聯合大會의決議及同三十一日以後右兩日報에揭載된記事及其他事項에對하야調查委員을選定하야充分調查後對策을講究할일

一、前記事項調査結果에依하야對策講究의件은執行委員長에一任할일

一、本會와우리親睦會와合同하고우리親睦會를解體하기로兩會代表合同決定한것을承認할일

昌城牛疫

旣死七八頭?

平北昌城郡新倉面[?]德洞에는牛疫이發生되여七八頭가死亡되고東倉面大楡洞二十里에서도發生되엿다하여方今獸醫가臨檢할터이라는데農家의恐慌이莫甚하다더라(大楡洞)

平壤勞聯決議

十四日臨時大會

平壤里門里平壤勞働聯盟은目前에方向轉換의宣言을發表한後積極的으로모든일을進取하는바지난十四日에는同會館內에서臨時大會를開催하고左記諸案件을決議하엿다더라(平壤)

◇決議事項(各項細目略)

一、反動團體除盟承認의件

一、勞總加盟手續變更의件

一、關西民衆運動者大會參加의件

一、社會團體聯合懇談會開催의件

一、組織方針에關한件

一、炭鑛夫慘死事件對策의件

(가)專門家에依賴하야該炭鑛의設備內容及慘死眞相을調查할것

(나)慘死眞相을들어會社에公開又는糾彈演說會를開催할것

(다)經營者에게抗議又는警告할것

(라)慘死者에對한[illegible]當하支給케할것

(마)慘死者의追悼會[illegible]것(但執行委員會에一任하야實行케할일)

◇運動條件

一、(一)全民族的利益[illegible]單一黨樹立(二)略(三)[illegible]拓等移民反對(四)略

二、(一)團體權、罷業[illegible]約權의確立(二)最低[illegible]確立(三)八時間勞働[illegible](四)幼年及婦人의夜[illegible]危險作業禁止(五)無[illegible]止、解雇手當撫償[illegible]働에對한同一賃銀支[illegible]働者의傷害補償、中[illegible]廢(八)日曜及노는[illegible]한賃銀支拂

三、(一)民衆의要求와[illegible]敎育制撤廢(二)迷信[illegible]의撤廢(三)男女敎育[illegible]無産兒童授業料廢止[illegible]學生의自治權獲得[illegible]衆의文盲退治

四、(一)封建的遺禮打[illegible]性靑少年에對한差別[illegible]民族的虐待와酷使[illegible]身賣買禁止公娼廢止[illegible]思想退治(六)未成年[illegible]婚禁止

腐食物嚴重取締

[illegible]

裡里幼稚園

基督信者引受經營

[illegible]

四名은中止當코 그中二名檢束

二日間豫定으로一日만開催 關西男女雄辯大會

[illegible]

巡迴探訪 ―(七百四)―

世界的樂園인金剛을자랑 生活程度는大概貧窮 (2)

高城 一記者

◇副業 養蠶戶數는二千八百五十八戶에飼育枚數가二千三百二枚에止한다 此를細分하면春蠶戶數가一千八百七十七戶에飼育枚數가一千六百十枚이고夏蠶戶數가五百八十六戶에飼育枚數가四百二枚이고秋蠶戶數가三百九十五戶에飼育枚數가三百枚假量이다 此三期에對한年總收繭컹은約七千石內外이다 우리는무엇보다現在郡內桑園總面積百十一町步를大大的으로擴張하야하로밧비價値잇는副業으로向上하기를期待한다

畜牛는郡內總數가五千七百四十三頭로 牡가一千七百八十八頭 牝이三千九百五十五頭인바年生産이 一千一百五十三頭에達한다

◇林業 郡內林野面積이十萬二千一百四十一町步이데 此를細分하면 國有林이五萬八千一百四町 而有林이五百二十六町 里有林이二千七百三十七町學校林이百七町其他四町、寺刹林이一萬四千八百六十一町 民有林이 二萬五千八百二町이다 此에對한造林狀況은 一一히發表키難하야 槪括的으로는七十七萬五千本의立木이有하다

◇水産 漁業戶數가一千一百四十四戶인데 主業者로朝鮮人이五百四戶 日本人이二百四戶에兼業者로 朝鮮人이五百三十四戶 日本人이二十三戶이며從業者로는 朝鮮人五十九戶뿐이다 그런데此를 人口別로區分하면 朝鮮人이四千五百九十三人이고 日本人이三百八人으로合計四千九百一人이다그런데每年漁獲物의重要種類는鯖、大材魚、鰯、明太魚、鱈、鰊、鰤、鯛、大刀魚、海鼠、鮑、和布、蛸、鮮、鰤、其他雜魚等인데 朝鮮人의年收穫高及見積價格은 百二十萬一千五百五十六匁에 二十八萬九千四百三十九圓이고 日本人의 年漁獲高及見積價格은百三十萬一千 二百七十四匁에三十七萬六千六百九十圓이되야 總計로는二百五十萬二千六百八十匁에 六十六萬六千一百二十九圓의 見積價格이다그런데 漁船이總四百九十餘隻인데其中發動船五隻과 日本型百十六隻은 日本人의所有이고남오지二百餘隻이 朝鮮人의所有이며 漁網二百四十九統中朝鮮人分이 百六十九統이고 日本人分이八十統이다

◇鑛業 本郡에는金鑛이六個所고 金銀鑛이三個所、水鉛鑛이二個所、鉛鑛이一個所、銀鉛鑛이一個所、重石鑛이一個所로合計十四個所의 鑛區이有하다

◇交通 元山襄陽線二等道路로管內延長이 十八里一町金化高城線二等道路로 管內延長이八里京城五里 津線平壤三等道路로管內延長이 二里十一町인데陸上運搬具로는 自働車가十五臺荷牛車가二百臺 荷車가十三臺自轉車가二百四十八臺計六百五十一臺이다그리고水運으로는長箭、巨津、烽燧의三港이有하야汽船出入이 頻繁함으로貨物移入出에 大端히便利하고每年六月부터九月外지는 金剛山觀覽客의便宜를 圖하야連絡船이有하다

宗敎界

基督敎禮拜堂이十個所인데敎人이二百七十六人이고佛敎로는寺刹及布敎所가十六個所인데朝鮮人僧侶가二百七十八名日本人僧侶가一人이더라

敎育界

本郡에는高城、長箭、杆城의三個公立普通學校가有한데生徒가男子九百七十四名、女子三百十七名이며水洞縣內의私立普通學校가有한데並男女二百餘名이고또高城、長箭、金剛의三個小學校가有한데生徒數는男子五十七名女子六十六名이다

社會團體

本郡는現代에뒤떠러진七個所의靑年會가有하고其他二個所의團體가有하나別로보잘것이업스며다른곳에比하야그運動이아조微微할뿐이다

名勝古蹟

◇金剛山 邑으로부터西方五里許에在하야本郡의背面으로聳立한한奇峯一萬二千이天下에卓冠된바其中最高한毘盧峯은一千六百三十六米突이高峯인데本郡에屬한部分을外金剛이라 稱한다그런데 萬二千峯의形容色態를悉筆로一一히 說明하기는到底히不可能하기로 其中重要部分을 摘記하고其餘는愛山樂水各位에게賞覽을任 하고저한다

◇九龍淵 此淵을九龍淵이라고稱하는理由는 往昔西金剛大刀에 居하든九龍을月氏國으로 渡來한五十三佛이逐出하얏슴으로 此淵에來棲한緣故라고한다 그런데九龍淵全景을말하면八潭으로부터 落來하는絕壁萬丈의瀑布로 落九天의銀河가아인가 疑訝한다그리하야其下部에는深深無地의 巨淵을成하얏스며 四圍의松茂柏悅과屏岩怪石이 別有天地의眞境이다一覽에塵世의 俗情이半空에飛拂하고 淸凉한心事가仙家의蓬萊으로化成되는 理想的修養地로最初造物主가人類社會의 穢濁千萬한 煩腦를除拂하라는聖安地로特定한 神秘淵이아인가思料된다

禮安協同組合

十三日에創立

慶北安東郡禮安面에서는禮安協同組合을創立코저當地有志들은얼마前부터創立準備에努力하든中지난十三日下午一時에禮安面會議室에서八十餘名의組合員이集合하여創立總會를開하고臨時議長李璜鎬氏司會下에組合長李中進氏外二十七人을選擧한後來十月一日內에開業할것과附近六面을通하야組合員募集할것과其他를決議하고同六時半頃에萬歲三唱으로散會하엿는데當選된任員은組合長李中進理事金[?]李文監事中李[?]氏라더라(安東)

納涼煙火大會

鳳陽記者團에서

沙里院鳳陽記者團에서는納涼煙火大會를開催하고저爾來모든準備에着手하야各方面으로活動하든中豫算은約三百圓으로本月二十七日午後八時頃부터當地景岩山下에서開催하기로完定되엿는바種類는打上煙火와仕掛煙火二種으로準備를하엿스며當時에觀覽席으로現場에도準備하엿스나各自家庭에서도觀望할수잇게된바酷暑에시달리든一般市民의一大慰安이되리라더라(沙里院)

夏期休暇를利用

講演、演劇、活寫等 내故鄕爲해活動하는學生들

音樂과講演會

金泉在籍者로外外地에留學하는學生으로組織된金泉留學生會에서는夏期休暇를利用하야各各歸省한機會에故鄕인金泉郡內農村의啓蒙을爲하야該會創立紀念事業으로郡內幾個所에서巡廻講演音樂會를開催케되엿다는데巡廻日割과場所는如左하다더라(金泉)

日割	場所
八月十六日	開寧
八月十八日	知禮
八月二十日	甑淼
八月廿二日	牙川

襄陽音樂演劇

在京襄陽學生親睦會主催로庭球試合音樂會及素人劇을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이어니와中外、本報兩支局後援下에豫定대로庭球試合은지난十二日午前十一時부터襄陽公普校코-트에서開催되엿는데사흘입는여름비는간간히나렷스나第一回戰으로부터各選手의猛虎갓흔競技는一般觀衆의人氣를끌어拍手喝采가끗치지안는大盛況을일우엇는데最後의月桂冠은春川팀으로돌아가고午後七時에賞品授與式을맛치고同九時부터繼續하야南門里漢北書堂構內에서音樂會及素人劇이열렷섯다나러던비는개이고天氣가明朗하야秋七月十五夜月은開幕前에各演士들의神經을興奮식혓다豫定대로音樂會를맛치고素人劇이開幕되엿섯는데男學生側에서는『風雲兒』로女學生側에서는『離婚』으로各各出演한에滿場의歡喜聲은場內場外를震動하엿섯는데觀衆은無慮千四五百名으로大盛況을일우엇다더라(襄陽)

軍威學生講演

慶北軍威에原籍을두고東京、京城、大邱等地에留學하는學生으로組織된赤羅會에서는今月十五日부터向十日間豫定으로男女靑年講習會를開催하야農村啓蒙에盡力한다하며來十九日午後八時에는元一學院廣場에서講演會를開催한다는데當日은留學生뿐아니라斯界有志諸氏의後援講演도잇슬터인바男女聽衆을多數歡迎한다하며演題及演士는다음과갓다더라(軍威)

一、社會科學에對하야 李永植

一、敎育의心理 朴七夕

一、現代資本主義 朴奎述

一、社會的疾病 李龍胎

一、題未定 徐相吉

一、題未定 朴貴文

一、民衆의生活信條 金汶[?]

一、朝鮮青年아自重하라 柳志相

一、農村雜談 徐春守

統營學生講演

慶南統營郡在外留學生聯盟會主催와本報支局後援으로去十三日부터二日間大和町靑年會館內에서第一回夏期講演會를開催하엿던바定刻前부터雲集한聽衆은場內에立錐의餘地도업서大混雜을일운中에同會長金琪英氏司會下에簡單한開會辭가잇고나자東京日本大學文科生池斗浩君이登壇하야『個性의變化와社會의進運』이란題로熱辯을吐하고다음은「協同의精神」이라는題로徐[?]君이熱辯을맛치자聽衆의拍手裡에登壇한中國南京에留學하는金俊鎬君의『中國動亂과民衆運動』이란題로熱烈한雄辯을吐하고이어서그翌日八時부터同會館에서文藝部長池斗浩君의司會로『나의遺憾』이라는題로千[?]亭君이活潑하게辯하엿스며다음으로金琪英君이登壇하야『朝鮮婦人의할일』이라는題로婦人席에만흔感覺을주엇스며따라서日本大學農科生金昱杜君의『肥料에對한常識』이라는題로長時刻의熱辯을吐하고同日午後一時에大盛況裡에서閉會되엿다더라(統營)

潭陽學生音樂

全南潭陽在外留學生同盟에서는八月一日부터一時間式數學、英語等의學術講座를開催하야繼續하는同時에一方으로는音樂大會準備에紛忙中이이든바去九日은雨天으로因하야延期되고同十日十一日兩日間에潭陽靑年會館에서唱歌、舞、바이오링等의數十餘種의音樂大會를田[?]基氏의司會로開催하엿다는바定刻前부터몰려드는三百餘群衆裡에서淸雅한佳曲과間間히意味深刻한趣旨說明은滿場의群衆에게莫大한印像을與하엿다하며同情한人士와金額은如左하다하며三四百圓을맛할터이라는데이金額만으로는充數가되지못함으로繼續하야地方人士를個別訪問하고同情을求할터이라는데地方에서有力한富豪諸氏는特別한同情이잇기를바란다더라(潭陽)

▲李理汝女史、無名氏、鞠在烈、吳鍾南、梁萬世、李金子女史、朴順愛女史、李業非女史、金貞順女史、鞠貞順女史金安順

女史、安鍇洙、鞠朝鮮、平壤李君錫、洪學均、金順愛女史、張洪珍、金消洙、無名氏、林鍾煥、無名氏、金賢子孃、河仁淑女史、金三甫、朴錦秀、金煥、金昌燮、鄭德煥、金옥현女史、鞠琛鎬各金一封、田秉甚、鄭水岩、張玉璟女史、鄭也模女史、崔玉順女史、無名氏、鄭一伯、松田女史、徐升圭、故林玟鎬祖母各二圓、金文圭、鞠琛劉、林桂洙女史、鄭琛金姬、無名氏各三圓、鄭均植、鞠琛善、鞠琛亭各五圓

尙州에納涼音樂

慶北尙州樂友會에서는來廿日下午七時半에尙州公立女子普通學校講堂에서尙州靑年會와在尙七個新聞支局外數個團體의後援으로納涼音樂會를開催한다는바一般人士는多數參席하기를바란다더라(尙州)

말성만튼馬山敎會 또다시分裂?

多數派中百餘名結束으로 ◇自治敎會를別設

馬山基督敎會에서는數人多數派對李相召派間에紛糾가이러나든久한時日을두고서로흠을繼續하여오다가李相召派가敎會를別設하고禮拜를본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數月前에敎會多數派의首領의地位를爲하고鬪爭하든朴承禹、金根守兩氏가宣敎師會及慶南老會에無條件謝罪한으로因하야更히專備委員을馬山敎會에派送식혀兩派의妥協에努力한結果皮相的妥協이되여約一個月前부터敎會를合同하야一所에서禮拜를보아왓스나넘어나高壓的이며無理한老會政治에不平을품고나려오든數人多數派中崔元則、李起洪崔鍾完諸氏外百數十名의男女敎人이結束하야宣敎師干涉이나長老會의治理를맛지안는自治인朝鮮耶蘇敎를設置하기로하고去十四日夜부터當地校原洞陳永鍾氏家에서崔元則氏司會와崔鍾完氏講道로써第一回禮拜를보앗다는바일로부터馬山敎會는確實히分裂되엿다는데今番에이와갓치急速히自治派가이러나獨立으로敎會를設置케된動機를드른즉馬山敎會前番會員金永奎氏와其他朴某의僞證으로因하야無罪한朴承禹敎師에對하야慶南老會가有罪判決을言渡하엿다는詳報를接한數人多數派에서는老會의橫暴를憤慨하야去十四日午前禮拜時에現在馬山敎會를治理하는專權委員에게質問을하고同時에그僞證事實에對하야質問한結果事實無根이라는始末書까지밧고自治를宣言하고分裂하야나간것이라더라(馬山)

各地運動

平澤脚戲大會

平澤市民主催로陰七月十五日부터八月五日外지每市日마다脚戲大會를開催한다는데賞品은黃牛二頭外에副賞品이多하다하며初日인去十五日부터觀衆이無慮數千에達하야頗히大盛況을呈한다

元山에서蹴球

元山市外德源과南山里괴鴻鑠俱樂部에서는來二十八日午前九時부터泉星原[?]文球場에서安、邊、文第四回蹴球大會를開催한다는바벌서十餘團體의申請이잇슴으로大盛況을豫期한다더라(元山)

元山對咸興庭球

去十四日午後一時부터咸興高女校코-트에서全元山庭球選手를網羅하야組織한元山遠征團과全咸興팀과의庭球試合이有하엿는바元山軍이六對一으로大勝하엿다더라(咸興)

安東陸上競技

安東留學生會와安東青年同盟의陸上競技를來二十一日北穀[?]練兵場에서開催할터이라는데多數來參을歡迎한다더라(安東)

金泉庭球盛況

金泉留學生會主催의全金泉庭球大會는豫定과가치去十四日午前九時부터金泉公普校코-트에서開催하고崔學洙朴己用兩氏의審判과滿場觀衆의拍手裡에各組選手들의猛烈한싸홈이잇는結果最後優勝은朝日組로도라갓다는데午後二時에優勝旗及賞品授與式을擧行한後閉會하엿다더라(金泉)

大邱軍이優勝

去十四日午前十時부터金泉體育協會主催로同協會運動場에서全金泉軍對大邱中學校軍의野球試合이잇섯는데滿場觀客의應援裡에兩軍이猛烈하야大邱中學校軍이勝을得하엿다더라(金泉)

南市庭球終幕

第一回南北庭球大會는豫定대로지난十三日午前十一時에南市公立普通學校運動場에서會長具益均氏의開會辭를비롯하야參加한七個團體의選手들은各各技能을다하야優勝의榮冠을어들려고猛烈히싸우는模樣은만흔觀客에게興味를늣겻스며最後의月桂冠은鐵山組에게도라갓다더라

第一回伊川少年青年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十七、八兩日間

◇場所 伊川「사다리」코-트

◇申請 伊川學友會、本報支局

◇參加 青年一圓、少年五拾錢

◇主催 伊川學友會

◇後援 東亞日報伊川支局

全高原蹴球大會

◇日時 八月十七、十八兩日間

◇場所 未定

◇申請 中外日報高原支局

◇主催 全高原留學生學友會

◇後援 中外、東亞兩支局

高敞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十七、十八兩日(雨天順延)

◇場所 興德庭球「코-트」

◇申請 高敞郡興德興友會

◇參加 南朝鮮一帶

◇主催 興友會

◇後援 興德商會、興俱樂部、朝鮮、東亞日報高敞支局

第三回裡里蹴球大會

◇時日 八月十八、十九兩日

◇場所 裡里鐵道球場

◇申請 裡里七月會

◇參加 南朝鮮一帶

◇主催 裡里七月會

◇後援 中外、朝鮮、東亞三支局

全朝鮮水利組合實況踏查記

平安北道

工事方面失態重重 初創時에는民怨

設計關係로工事期와工事費만過重

定州同仁水利組合

◇第三隊第一班 金東進

同仁水利組合은大正九年九月廿二日에三百九萬圓(國庫補助九十七萬三千圓)의事業費로設立된者로組合區域은定州博川二郡에亘한五千二百九十二町步이나給水面積은定州郡大田、古邑、葛山、馬山의四面과博川郡西面의四千二百二十一町步、長水灘江上流에高百二尺長百五十間의土堰堤를築造하야二百三十町步의貯水量과水量六億六千萬立方尺의水를貯藏하엿다가東西兩配水幹線으로一帶에給水、現在組合員千九百八十八名組合長金濟河、理事小川敬郞外技師長一人、書記三人、評議員二十人、事務所京義線雲田驛前

◇設立沿革◇

本組合區域은大寧淸川兩江의合流地點에位한 沖積層粘質壤土로地味가肥沃하야 平北에第一沃野라고하엿스나 水利의便이업서 乾畓에不過하엿다總督府에서는 大正二年以來이區域에水利組合을設置코저 屢次技術官을派遣하야 實地調査를計하엿스나 怠慢遲延하여오다가大正七年好況時를機會로 組合設立計劃이다시擡頭하야 大正八年에 工事에着手코저하엿섯스나 맛츰稀有한大旱災로着手치못하고 九年一月에 實地調査를終了하야 安炳遠等十數名으로하여금 組合을創立케하야九月에認可를得하고 十一月에起工하야 二個年即十年에竣工할豫定이엇스나 工事의蹉跌이續出하야 四十五個月만인大正十三年七月二十五日에서 艱辛히竣工되엇스나 蒙利區域은三千三百町步에不過하야 組合員의負擔이大過하야 怨聲이衝天하엿다 大正十五年六月에葛山面의乾畓二百八十町步와 干潟地百八十町步 計四百六十六町步를擴張하야 三千七百八十六町步로하고 今年度부터는다시擴張하야 四千二百二十一町步로되엿다는데 擴張後竣工費가三百二十四萬四千圓에達하엿다

고大正十四年에는 收穫이少하야 一町步 二十六石에不過하엿슴으로 籾一石에十五圓에放賣하엿다하더라도 四百二十圓의收入에支出은百五十二圓二十錢임으로 差引純利益은二百六十六圓七十錢에不過하야 十五年보다 百六十四圓十錢의減이잇다 이와가치十四年까지 別般利益이업섯지마는 昨年度부터야 水利組合의效果를認定케되여가는中이라한다

集中하는小作人

滿洲粟을먹으면서 ◇一帶의情況

十二年度에는七月以後給水를시작하야 收穫에는何等影響을주지못하고 九圓二十六錢이라는組合費만 徵收하엿슴으로組合員 一千九百八十八人이二萬五千餘圓의 高負擔을하게되엿다하나 十五年度의利益은그를補償하고도 若干의利益이잇는셈이다 이와가치農家의經濟가幾分間 潤澤하여짐으로小作人이集中하야 十五年度에는三十戶百十四人이增加하엿다고 한다 然이나 小作人의生活은一町步小作에百九十五圓의利益이잇다하는바 今日에도依然히滿洲粟을常食으로하고 잇다고한다

堤防築設이急務

廿五萬圓의工事費가必要 江落頻頻으로一大危險

同仁水利는現狀대로進行된다면不過幾年에 豫想한一反步當五石의平均收穫을보게될는지 모르나 地形이淸川、大寧兩江岸에位하야 江落되는土地가莫大하다 水利組合設計를完成한해가 大正九年인데十五年까지七年間에 五百餘町步의乾畓이江落되야버렷슴으로 大正十五年에給水面積 五百町步를擴張하엿다하여도 其江落面積의補充에不過하리라고한다 耕地에最大危險인 이江落을防止함에는 于先二十五萬圓의工費로堤防을築設치안으면 到底히現在와가튼制水工事 消極策으로는防止할可能性이 업다고한다

三十五錢의 負擔으로充分하리라고한다

地主와小作關係

小作人側負擔이頗多

現在組合員百十八人中 其中四十三人은 一部自作이오 그남어지六十七人은純全한 地主이며小作人의數爻는 百十一人인데不過百十二町步의 耕地를若干의自作農과 共히耕作함으로耕地面積이 一人分 一町步에도不過하나 小作人은楊市組合區域外에도 耕作地를가지엇다함으로 其收入을楊市組合만標準할수업다 그러나楊市組合만을標準하야 其收入을計算하여보면 地質關係로每反步에七圓式이나施肥하는것을 小作人이全部擔當함으로 매우不利한處地에잇다 平北一帶의慣例대로만보더라도 小作人이데 오즉龍川郡에만限하야 이러한慣例가잇하나이는耕地의收益이 比較的多額이關係도이지만 何如間小作人은 每反步에七圓이라는肥料大金額을支出함으로 設或前項支出에서 勞銀十圓中 牛一頭借用料二圓을除한八圓이 大概小作人의努力提供이라 看做하더라도地主에 比하야若干의不利가잇다

組合員太半이自作農 組合費는逐年減少

地主들이自發로設立한後의成績

龍川楊市水利組合

楊市水利組合은大正十三年九月에發起 同十五年八月十五日附로認可를得하엿스나給水는同年春期부터開始 蒙利區域은龍川郡楊下面楊市의東部에位한龍川郡楊光面及東下面의二面三洞에亘한狹長한一百十二町步 電氣動力喞筒으로三橋川水를揚水(電氣動力料月三百六十二圓) 組合員百十二人 組合長金永河 書記尹國衡 評議員八人 組合事務所所在地楊市

創設된經路

楊市水利組合은三橋川 忠流等組合區域과 連接한者로三橋川及大正水組의 利益을目睹한 純朝鮮人地主 金永同氏外十一名의發起로 大正十三年九月에 起工하기로하고 設計者로三橋川水利組合設計者이든 東烏某를招聘하며 瓦斯動力揚水로하기로하고 또한安東縣方面에서鐵工業을하는 其親戚을請負人으로하야 諸般不利한事를組合에맛치게한다하야 道總으로부터取消케하고 道技術者가作製한設計에 依하야本邑電動揚水機를架設키로되엿슴으로 組合에서는 그賠償으로千三百餘圓을東烏에게支拂하엿다 이러한失費가잇섯스나 다춤한朝鮮人끼리의小規模的事業임으로 諸般工事費 二萬一千四百二十圓으로 完全한工事를竣成하엿다 한다 組合初年度의諸經費는工事費管理費를合하야 三萬六千四百九十二圓이엇는데 其中國庫補助가 六千六百八十七圓이고 雜收入이 二十二圓이엇슴으로其殘額 三萬六十圓과大正十六年度歲出合計 六千六百八十七圓에서組合費 三千一百六十三圓及 雜收入二十四圓을除한殘額二千五百六十圓이 起債額으로되여잇는데 이償還方法은二十年間年賦로 每年償還額은二千二百四十二圓式이라한다 그런데水利組合費가 一反步當平均五圓임으로 總計五千五百八十餘圓의年收入이 有하니負債를갑고 管理費며諸般費用을쓰고도오히려剩餘가有하니 水利組合費의高騰은 萬無할터이며償還期限인 二十年만經過하면經費年額이 四千八百六十四圓에不過할터임으로 一反步當四圓

荒蕪地가沃土로 純益이莫大

每反步에三十餘圓이純益 組合前後의收利比較

以上은組合負擔을數字로計算한바어니와 組合設立前과後의組合員 實地利害를調查하면 創立前 地目別面積이 一千二百二十五反步中 五割四分이乾畓이고 其餘四割六分이 沓及雜穀地가잇슴으로 收益에各其差異가잇슬터이나 全部를乾畓으로看做하고보면 一反步의收支가

◇支出

種子七升(一石十二圓)	八十四錢
肥料(堆肥)	約二圓
勞銀 八斗一人	七圓七十錢
牛一頭	二圓
公課	五十三錢
合計	十二圓七十錢

◇收入

籾 一石四斗	十七圓八十錢
藁 六十貫	一圓八十錢
計	十九圓六十錢

以上과가치支出이十二圓七十錢이엇스니 收入이十九圓六十錢 一反步의純利益이엇다 이것이組合設立後인今日에는

種子(七升)	八十四錢
肥料(豆粕)	七圓
勞銀(牛一頭二圓包含)	十圓
公課	五十三錢
組合費	五圓
計	二十三圓卅七錢

◇收入

籾(四石六斗)	五十四圓
藁	五圓
計	五十九圓

임으로收支差額인三十五圓六十三錢의 組合設立後의純益이라할수잇다 그러나組合創立前의純益五圓九十錢에比하면 二十九圓七十錢의加增이다 이것은元乾畓을基礎로한 利害計算이라 總面積의 四割一分이新穀地로 一反步當一圓二十錢(稗作)乃至二圓五十錢(粱大豆)의 收入이잇섯슴에 不過하엿든것과 比較하면現在組合費가六圓(一等級임으로六圓이다)이라하더라도莫大한利益이잇다고아니 할수업다

◆天氣豫報◆ 曇 驟雨

昨日正午 [illegible] 再昨日最高 [illegible] 昨年昨日正午 [illegible]

負擔過多로 地價만暴落

創立初부터不平든理由 이통에日本人만得利

同仁水利組合은 民間의自發的事業이아니라 官廳의指導로設立된半官半民의事業 임으로設計며工事全部를 官廳의慫慂대로行하야 一般組合員은그進行을注視하고잇섯던것에 意外和田技師의 工事設計에큰蹉跌이生하야進行하든工事를 中途에廢止하고設計를다시 製作하야工事를 못하게하엿슴으로 百五十萬圓以上의濫用한費用이 浪費되엿다이로말미아마 一町步工事費가七百七十圓에 達하야平北의最高位로되엿스나 이제그比較를하야 致偶處의組合과對照하여보면

同仁水利	七百六十八圓
大正水利	五百七十八圓
三橋川水利	二百九十圓
博川水利	五百九十圓
楊市水利	百九十圓
忠流組合	百六十圓

이와가치 工事에가장地質이不良하다는博川水利보다도 百七十八圓이 高騰하게되엿다이것은工事設計者의 過失로돌려보내면 그만이겟지만은이로말미아마官廳이 責任上全工事費의二割乃至二割五分에 잇치는補助를 二割二分以上이나支給하엿스나 그것만으로補充치못하야組合員의負擔이 創立初의一反步當六圓八十錢이든것이 二圓五十六錢이나 增加가생긴九圓二十六錢을 蒙利도못한十三年度에納付하게되야 過酷한負擔에大地를拋棄하는地主가續出하야 乾畓一坪의平均時價가二十五錢으로부터 五錢乃至六錢으로까지 低落하여버려土肥業가든 日人地主는約三百町步以上을買入하야 一般民心이極度로不安하엿다고한다

組合費만물다 昨年부터得效

水利組合이된以後의經過 順路로드는組合의運命

그러나 其後組合의內容을漸次로改善함과 一方으로十四年度부터의 成績은過大한破綻을防止하며 漸次堅實하게되여가는中이라 十五年부터는 九圓三十六錢式의 組合費를 못負擔하고도相當한利益이잇섯스니 收支를數字로表示하면 十五年度一町步當

◇收入

籾二十六石七斗	五百十三圓八十錢
藁(千貫)	三十圓
計	五百四十三圓八十錢

◇支出

種子(五斗)	七圓五十錢
肥料(二十枚)	五十圓
公課金	二圓二十錢
組合費	九十三圓三十錢
計	百五十三圓
純利益	三百九十圓八十錢

米價의變動이해마다잇서서 十二圓乃至十五圓間을上下함으로 平均收支를計出함에는 最低額을標準으로함이 至當하나 十五年에는 平實石十四圓에放賣가되엿슴으로 此項에는十四圓으로 計算하엿다 그러

◇同仁水組의貯水池

蒙利區域이沃畓化 地價暴騰된一帶

朝鮮人끼리經營하는模範的組合

義州光津水利組合

光津水利組合은十五年六月부터義州郡光城面正心洞三橋川에廿五馬力及補助喞筒十五馬力古津面古浦洞古浦川에十五馬力及補助機十馬力喞筒을設置 滿鮮廠產電氣의送電을動力으로揚水하야光城面及古津面의百九十町步에配水하는데 總事業資金四萬二千圓(國庫補助九千七百四十圓) 工費總額三萬七千圓 現在組合員百四十名(全部朝鮮人)組合事務所光城面光斗洞

非組合員請求로 灌漑面積을擴張

純全한朝鮮人의事業이오組合員이 一心하는일임으로軋轢紛爭가튼것이업고 萬事를協議的으로하여나감으로 其成績이매우良好한데 今年水害를입으되被害地約七町步에는 復舊스러운

本光津組合은楊市忠流等과거의同時에創立된者로 光城面長姜利璜氏와 吳永浩氏等의發起로된것이다 大概乾畓으로一反步에서黃租二石의收穫에 不過하든것이 初年인昨年에平均四石(百八十斤一石平均十五圓)의收穫이잇섯슴에 組合費는不過每反步當三十圓이엇슴으로 一年間에地價가高騰하라고 前에는乾畓一町步에 九百圓乃至一千圓平均에賣買되든것이 只今은二千圓을突破한良畓도잇다 初年度인 昨年組合費가二圓이엇슴은 組合의初創時이라 一般地主의安心을엇고자함이든바 其成績이豫想以上으로 良好하여서 地主의信賴가두터워지게되엿는데 去番水害에被害가잇섯슴으로一圓七十錢으로 作定하엿스나地主의不平이업다고 한다

收穫도倍以上

水害地에는組合費를免除 團欒한組合全體의和諧

料金配定關係

會議도開催치안코 讓笑中에組合費를免除키로 決定되엿다고한다 이러함으로蒙利區域外의地主들도 그加入을願하야 五十町步의喞筒을增設하야 七馬力의灌漑面積을擴張하리라는데 一般組合員의 不滿은오즉滿鮮電氣料金의高額뿐이라고한다

小作料는平北의慣例가 地稅地主全擔 水利組合費折半 肥料는普通折半이나龍川의一部에만은 小作人全擔인데 한갓光城區域만은 三分之一을小作人이 負擔하는 慣例로되야 小作人에매우有利하다